

촉법소년 법안 강화

소방안전학부 202211770 박규현

1. 서론

촉법소년에 대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는가?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저희는 촉법소년인데요?’라는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도데체 이 촉법소년이 무엇이길래 청소년들이 이 법안을 믿고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말고도, 촉법소년의 범죄 소식은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려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0~18세 소년은 2017년 453만명에서 지난해 408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7897건에서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1만3536건에 달한다. 소년범죄 양상도 심상찮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증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1만1677명에 달한다.¹ 이렇게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악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연이어 터지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중심으로 정치계, 법조계, 법학계 사이에서 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0년대에 들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계에서 제기되었다.³ 실제로 문제인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끝내 개정되지 못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등 법안 개정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차라리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³

2022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지만, 정의당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아동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³ 이에 따라 촉법소년을 강화 혹은 폐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촉법소년으로 인해 여러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소년범들의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죄질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인해지는 점 들을 근거로 촉법소년 법안을 강화해야만 한다.

1.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2022.11.26. 00: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736>, (2022.11.26. 접속)

2.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2022.11.26. 접속)

3. 나무위키 형사미성년자, 2022-11-26 02:15:00,
<https://namu.wiki/w/%ED%98%95%EC%82%AC%EB%AF%B8%EC%84%B1%EB%85%84%EC%9E%90?from=%EC%B4%89%EB%B2%95%EC%86%8C%EB%85%84> (2022.11.26. 접속)

2. 본론

2.1 청소년들의 촉법소년 악용 가능성

누군가 당신에게 한 시간 동안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여도 큰 처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처벌만을 내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마도 그동안 상상 속으로만 하였던 행동들이나 참아왔던 욕구들을 해소할 것이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⁴ 이러한 법안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다. 역시 여러 청소년들은 촉법소년 법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을 방지해 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아직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한 뒤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을 방지해 준다는 점을 믿고 그러한 범죄들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 것은 아닐지 경각심을 일깨워 보아야 한다. 소년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위 법의 목적과 같이 촉법소년 법안은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는 법안이지만, 청소년들은 이 법안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이미 기회를 주었고, 하지만 그 기회를 역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회를 더 주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분명 청소년들에게 보호해주고 기회를 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배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 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행동하기에 이르기까지 법안이 악용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지식백과 촉법소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1965556&categoryId=43667>,
(2022.11.26. 접속)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2015.1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l1:0>, (2022.11.26. 접속)

2.2 촉법소년 제도에 의한 범죄 증가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남녀노소 어른, 아이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즉, 형사미성년자들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 예를 들어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학교에서의 행정 처분 등을 알고 있었다면 촉법소년을 악용할 생각조차 못 했을 거라는 주장은 대개 타당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성숙하지 못하다. 이 사실을 우리 사회와 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확실히 미성년자들은 아직 어리다. 어리다는 뜻이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뜻이 아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민사적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아무리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와 명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 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러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오해가 존재하고, 또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청소년들은 우리는 아직 촉법소년이라는 사실, 이 이유 하나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촉법소년 제도를 내세우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2020년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가 있다. 2020년 3월 29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훔친 차량을 몰던 중 학생들이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치고 도주한 사건인데, 심지어 현장에 있던 8명 중 2명은 사고 직후 또 다시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검거되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SNS에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행동들을 보였고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공분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이라도 하는 듯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다. 사고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솔직히 지금 선배들도 다 무면허로 차 많이 타는데, 저희는 사고가 나 버려서...” 라는 발언으로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⁶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 같다.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의 착각에 의한 것이든 루머에 의한 것이든 현실 속에서 결과로만 보았을 때, 범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6. [법인카드] 27회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2022. 4. 21. 16:05, https://blog.naver.com/koreanbar_kr/222707260467, (2022.11.22. 접속)

3. 엄벌에 의한 재범 증가

만약, 우리가 잘못을 하여 심하게 혼나고 벌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당신은 처벌을 받은 뒤 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 만약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재범률이 증가할 것이다. 낮은 판단 능력 아래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갱생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으로 고쳐질 확률이 더 크다. 그러나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성인과 똑같이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교화가 가능했던 소년범들마저 빨간줄이 그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참을 사회에서 격리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년범들은 어떻게 될까?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복지나 대우, 교육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간 소년범들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물들고, 각종 범죄 기술들을 배우는 등 점점 더 범죄에 특화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원래는 한창 공부하여 학적을 쌓아야 할 시기를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냈기에 소년범 출신들은 안정적으로 수입을 버는 것은 매우 절망적일 것이다. 사회학에 따르면 범죄자로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은 그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일탈의 길로 빠지기 쉽다. 사회의 손가락질을 발판 삼아 스스로에게 악인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심리적 변동으로 인해, 충분히 재사회화될 수 있었던 사람조차 완전히 악에 물들어 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⁷ 따라서 소년범들을 낙인찍고, 범죄자들과 교제시키는 것은, 역으로 재범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 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⁸ 과연 청소년들이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 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치는데, 과연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범죄를 일으킬 생각을 할 것인가?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미약한 처벌 때문에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2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이라도 하는 듯 사건 발생 이전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수없이도 많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엄벌로 인해 재범률 상승이 두렵다는 이유로 그저 이렇게 미미한 처벌을 하여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너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호하는 행위는 곧, 범죄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7. 나무위키 형사미성년자, 2022-11-26 02:15:00,

<https://namu.wiki/w/%ED%98%95%EC%82%AC%EB%AF%B8%EC%84%B1%EB%85%84%EC%9E%90?from=%EC%B4%89%EB%B2%95%EC%86%8C%EB%85%84> (2022.11.26. 접속)

8. BBC NEWS 코리아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2022년 8월 2일,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390543>, (2022.11.27. 접속)

3. 결론

이로써 촉법소년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마쳤다. 상기해보자면, 가장 먼저 청소년들의 촉법소년 악용 가능성을 전제하였다. 그 후 촉법소년 제도에 의한 범죄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소년범의 엄벌에 의한 재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더 큰 범죄 발생과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촉법소년 법안 강화의 필요성을 보였다. 만약에 촉법소년 법안을 강화한다고 하면, 촉법소년 현재 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법안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첫 번째는 현재 하고있는 것처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해주고, 두 번째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형사처벌을 하여 성인과 똑같이 법안을 적용하여 처벌을 주는 것이다. 현재 촉법소년 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판단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한 뒤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을 방지해 주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무한정으로 계속 준다면 청소년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모른다. 그러므로 삼진아웃제와 같이 기회 수를 한정시켜 두어, 두 번의 기회를 주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법안의 정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들과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고 더욱이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가 촉법소년 법안 강화를 위해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이트

[법인카드] 27회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2022. 4. 21. 16:05, https://blog.naver.com/koreanbar_kr/222707260467, (2022.11.22. 접속)

나무위키 형사미성년자, 2022-11-26 02:15:00,
<https://namu.wiki/w/%ED%98%95%EC%82%AC%EB%AF%B8%EC%84%B1%EB%85%84%EC%9E%90?from=%EC%B4%89%EB%B2%95%EC%86%8C%EB%85%84> (2022.11.26. 접속)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2022.11.26. 접속)